

## 선교 편지 (2022년 8월)

-고동욱 교사라 선교사(일본)-

### 노아 인터네셔널 학교



일본은 3월에 졸업식을 하고 4월에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3명의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한명은 대학을 진학하고, 한명은 독일로 어학 연수를 떠나고, 한명은 1년동안 학교에 남아서 장래를 준비할수 있도록 학교에서 수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라선교사는 남은 졸업생을 1년동안 영어회화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라선교사는 이 학생과 더 깊은 교재를 하기를 바랬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일 하는 하루하루는 지치기도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졸업과 함께 한 학년을 마무리 할때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큰 보람이 됩니다. 특히 이번 졸업생중 독일로 어학 연수를 가게 된 학생은 처음 노아 학교에 왔을 때 하나님은 없다고 했었는데, 졸업할때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머님과 형까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30명 이상의 학생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올해도 새로 들어 왔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미국에 방문하게 되서 학기 처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다시 돌아왔을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반가워 해주시고 돌아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주시면서 반겨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잘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 YWAM 요쿠하마

작년 마지막 두달을 기도하며 베이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혼고다이 목사님들 그리고 버닝하트 스테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곳 청년들도 YWAM 베이스가 구체적으로 사역이 준비되어 가는 모습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고, 특히 혼고다이 교회 목사님은 저희가 내년에 DTS 를 할수 있도록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DTS 를 할만한 팀원도 재정도 없지만 믿음으로 내년 4월을 목표로 DTS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늘어 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베이스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5월에 YWAM 롱비치에서 스텝으로 섬기던 벤형제가 5월에 저의 팀에 합류했고 11월 말에 미국에서 마크 형제가 저희팀에 합류하리 위해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이 랜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현재베이스는 건물은 없어서 새로운 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벤 형제의 랜트를 구하면서 저렴하게 단독주택을 렌트할 수 있게 되었고 11월에 들어올 마크 형제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 후쿠시마 24시간 기도와 찬양

5월에 후쿠시마에서 24시간 기도와 찬양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홋카이도 24시간 기도와 찬양 모임이후 다음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모임을 할수 있도록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국을 방문 중인 기간이고 팀원들도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화상미팅을 하며 같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도모임 이후 팀원들의 간증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했습니다. 24시간 기도와 찬양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교회와 YWAM 베이스들,

그리고 예배자들을 연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들을 방문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문을 열고, 이렇게 방문한 지역들은 4월에 있을 DTS 아웃리치를 통해 다시 방문하여 그 지역 교회들을 연결하고 힘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 미국 방문

3월말부터 6월초까지 두달여 동안 2년반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파송 교회인 산호세 온누리교회의 방문과

미루어 왔던 파송예배, 두 아이들의 졸업식과 가족방문, 후원 교회인 캔사스 우리교회 방문을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2년 반만에 돌아온 미국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교인들을 만나고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고향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미국을 떠날때 사역지가 정해지면 다시 돌아 올 생각에 제대로 정리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일본소식들을 다니면서 나누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후원 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시간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함께 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저희로 인해 도전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뵈었을때 보다 훌쩍 나이 들어 보이시는 부모님들과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준 아이들을 뒤로 하고 사역지로 떠나는 시간은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다시 돌아온 일본, 많은 현지인들이 기다렸다며 반겨 주셔서 이 곳이 저희의 또 다른 고향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기도 제목

· 대안학교는 일본정부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후원이 없습니다. 일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아학교도 요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져서 더 넓은 장소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준비하고 있는 DTS 사역, 그리고 팀원들이 한 가족처럼 하나가 되서 사역을 할수 있도록. 9월에 새로운 지원자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지인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분별력을 갖고 잘 판단 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저희 부부는 WAM 베이스 사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노아학교 사역과의 시간과 노력을 균형있게 쓰기를 기도합니다.
- 24시간 기도와 찬양모임이 계속해서 다른 도시에서 할수

있도록

- 소그룹, 일대일등 저희부부와 교재와 인연을 맺는 많은 현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도록

